



## 차맥 지킴이

김대성

(한국차인연합회 고문)



# 차의 또다른 맛 ‘다유락(茶遊樂)’

은은한 음악이 흐르고 테이블 위엔 다구들이 보기 좋게 놓여 있다. 분위기는 좋은 차집으로 여겨기 쉽지만, 한 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책들이 예사롭지 않다.

“다유락(茶遊樂)”, 차와 함께 더불어 노는 곳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곳은 지난 11월 1일 서울 인사동에 문을 연 ‘차 전문 서점’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차 전문 서점은 ‘향기를 찾는 사람들’ 박희준(46·사진) 대표가 기존에 출간된 다서들이 열악한 출판환경으로 제대로 홍보되지도 못한 채 절판 또는 사장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마련한 공간이다. 이곳에는 현재 국내에서 발간된 차 관련 서적 80여 종 300여 권이 구비되어 있다. ‘서점’이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지만, 이 정도의 자료를 모으는데도 10여년이 걸렸다.

“차 인구가 적었던 10~20여 년 전만해도 차 관련 서적들은 한 권당 고작 1천부 정도가 인쇄됐고, 그나마 지방에서 출간되는 책들은 서울에 유통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때문에 불과 몇 십 년 사이에 대부분의 다서들이 절판되거나 사라졌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서두르지 않으면 우리 차문화를 담은 서적들이 사장될지 모른다는 마음에 서점을 열게 됐습니다.”

박 대표가 처음 차 전문 서점을 준비하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다서의 분류와 수집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다.

“차(茶)라는 글자가 들어갔다고 모두 다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동안 고서점과 지방의 한책방에서 찾아낸 책들을 꼼꼼히 읽고 정리하다보니 차 관련 서적들의 분류 체계를 조금씩 세

울 수 있게 됐습니다.”

몇 년간의 고민 끝에 그가 그려낸 이상적인 다유락의 모습은 ‘작은 책방, 큰 규모의 도서관’이었다. 책을 판매하는데 주안점을 두기보다 일반인들이 보기 힘든 국내의 다서를 종류별로 구비해 놓고, 누구든 와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욕심을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올해는 1990년대 이후 발간된 국내 차 서적을 구비하고, 90년대 이전에 출판된 책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내년부터는 학술지와 논문, 잡지 등에도 욕심을 내 봐야죠.”

이러한 이유로 다유락은 ‘도서관’의 성격을 더

### 인사동에 차전문 서점 첫 선

대부분 절판, 자료수집만 10년

차교실 열어 문화의장 꾸릴 계획

많이 가지고 있다. 다유락에서는 ‘도서열람비’ 2천원을 받고 있는데,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인의식과 서점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또한 한 달에 한 번 정도 ‘향교실’과 ‘차교실’을 열어 ‘차자와의 대화’와 문화체험 시간을 마련해 차인들의 만남의 장으로 꾸려갈 계획이다.

“다서를 정리하는 것은 바로 한국 현대 차문화사를 정리하는 것과 같다”는 박 대표는 “차를 사랑하는 마음이 곧 이 서점을 운영해 나가는 참된 원동력이다”고 말한다. (02)723-8154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서울 인사동에 문을 연 차전문서점 다유락, 박희준 대표(사진 위)는 “이곳이 차인들을 위한 도서관이자 차 문화의 장으로 자리잡기 바란다”고 말한다. 사진=박재완 기자

꼭 20년이 흘렀다.  
 1984년 4월, 차문화의 현장을 찾아 차문화의 원류를 밝히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강화도의 백은 이규보 선생의 묘소에서 시작한 취재는 98년 서울 성북동 선잠단과 창덕궁 후원을 찾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사단법인 한배달의 상임부회장이자 한국차인연합회 고문인 김대성(62) 씨. 그의 30여 년간의 기자 생활의 절반 가까이 차차하고 있는 차 문화 유적 답사는, 지나간 연재물이나 책 속에 담긴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이었다.  
 한국일보 부산주재기자로 일하던 70년대, 서예가故 오재봉 선생을 취재하러 갔다가 차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그때 선물 받은 차 한 통을 주전자에 우려 마시던 그는 “차를 제대로 알고 마셔야겠다”는 직업정신이 발동했다.  
 “가만히 앉아서 차만 마셔서는 진정한 차 맛을 못느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찾아 나왔지요. 당시만 해도 차에 관한 책이나 자료는 물론이고, 차를 마시는 사람조차 많지 않을 때였기에, 차밭이 있는 전국의 사찰과 차 유적지를 찾아 발로 뛰면서 배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차문화 유적을 찾아다니며 차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차가 어떻게 문화가 될 수 있냐’는 질타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지금은 차가 대중의 관심 밖에 있지만, 20년 후에는 일상

### 현장답사 통해 생생한 차세계 전달

온 국토가 유적, 관리소홀 아쉬워

전통 올바르게 찾아 가꾸는 것이 숙제

생활 속 깊숙이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취재가 거듭될 수록 그는 가슴이 뭉툭해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가 세계에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차문화라는 확신을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노력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월간 <스포츠 레저>에 연재한 ‘차파라 차길따라’라는 글을 통해서였다. 연재가 시작되자 사람들의 반응은 즉각적이고도 뜨거웠다. 하루에도 수 십 통의 제보와 격려,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문혀있던 차문화의 역사를 발굴해 차문화가 우리 민족문화의 뿌리라는 사실을 밝혀내려는 그의 답사는 3년 6개월간 지속됐다. 답사 길에서 그는 힘을 얻었고, 차를 배웠다.

지난 1994년에는 그동안 잡지와 신문에 연재했던 유적 답사기를 묶어 <차문화 유적 답사기>를 펴냈다. 그리고 또 3년이 흘러, 97년 4월부터 한국일보에 ‘차파라’라는 연재를 위해 그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다. 우리나라의 차 문화 유적 100여 곳과 중국과 일본 등의 유적 100여 곳을 살피는 대장정으로 시작했던 이 기획은 경제학과 40여 회 만에 중단되고 말았다. 하지만 그가 수집한 기록들은 그의 노트에 고스란히 정리되어 세상에 선보일 때를 기다리고 있다.

“요즘을 차문화 부흥기라고 말하지만,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선조들이 가꾸어 온 차문화 전통을 올바르게 찾아 가꾸어가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숙제가 때문입니다.”

여수령 기자

### 원광디지털대 차문화학과 모집

올해 신설된 원광디지털대학교 차문화경영학과가 신입생을 모집한다.

한국 차문화의 현대화와 세계화를 선도하고 ‘국민생활차문화운동’의 확산을 통해 현대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립된 차문화경영학과는 한국의 차문화와 세계의 차문화산업, 전통 및 생활예절, 차문화예술, 차문화 관련 행사 기획 등의 강의를 진행한다. 학과 수료시 전통차 예절강사 및 선명상 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및 예정자 혹은 이와 동

등한 학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접수는 12월 1일부터 2004년 1월 10일까지이며 합격자 발표는 2004년 1월 13일, 정원은 100명이다. 문의 1588-2854

### 명원다도문화원 하동 지부 개원

명원문화재단 산하 명원다도문화원이 11월 10일 경남 하동 제1지부(지부장 김예숙)를 개원했다. 경남 하동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원식에는 김의정 명원문화재단 이사장과 조유행 하동군수를 비롯한 단인 200여명이 참석했다. 식전 행사로는 국악인 김소현, 박정선 씨의 동

편제 판소리 한마당이 열렸으며, 행사는 김 이사장의 축사와 위촉장 수여 등으로 진행됐다. 김 이사장은 축사에서 “야생차 문화축제로 국내외에 잘 알려져 있는 하동에 지원을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지역 차문화 발전을 위한 교두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녹차, 에이즈 바이러스 증식 억제

녹차의 의학적 효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녹차에 에이즈 바이러스(HIV)의 증식을 차단하는 물질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일본 도쿄 대학 가와이 구즈시게 박사는 미국

의 의학적문지 <알레르기-임상면역학 저널>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녹차의 성분 중 하나인 에피갈로카테킨 물질(EGCG)이 에이즈 바이러스가 면역세포에 달라붙어 증식하는 것을 차단한다는 연구결과를 밝혔다. 가와이 구즈시게 박사는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차세대 에이즈 치료제 개발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와이 박사는 “실 험에 사용된 EGCG의 농도는 녹차를 마셨을 때 혈액에 나타나는 EGCG의 농도보다 높은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녹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 ###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산 동 선 회 법 회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행

## 곤지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비주 기도도량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장 5시간에 걸쳐 논스톱으로 올리는 대비주 기도예 불자님들의 모든 바램을 한번 멋지게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절은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선망조상 영가님들을 천도하는 역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천도재 기도도량입니다. 주[대비주 = 신묘장구대다라기]

### [III-1030] 기도봉행

<제3차 1030일 지장천도기도>  
 ○ 입재 : 2003년 11월 2일 ○ 회향 : 2006년 8월 27일

### 동지기도안내

○ 오는 12월 20일 부터 12월 22일까지 동지삼일특별기도를 봉행합니다. 그리고 동지기도에 즈음하여 한국불교 1700년 역사상 최초로 우리말사언절로 완역한 동봉스님의 42번째 책 <<예수재의>> (<<원월곡>>제7권)를 동참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법보시합니다. 오는 2004년도 전국의 모든 사찰에서 봉행되는 예수재 의식집으로서 시중에서는 구할 수 없는 매우 소중한 자료입니다.